

2026년 5월 11일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키움증권 

미국 고용시장, 숫자보다 약해진 체력

미국 4월 고용보고서는 표면적으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비농업부문 고용 증가를 기록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동시장 내부의 질적 둔화 흐름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대비 11.5만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전 2개월 고용 수치는 합산 기준으로 1.6만명 하향 조정되었고, 경제활동참가율 하락과 광의실업을 상승,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증가 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고용의 내용 측면에서는 둔화 신호가 더욱 뚜렷해졌다.

특히 이번 고용 증가는 헬스케어·운송·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적으로 집중되었으며, 정보서비스업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정보서비스업 고용은 2022년 고점 대비 약 34.2만명 감소한 상태로, 최근 이어지고 있는 AI 투자 확대와 실제 민간 고용 증가 간 괴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는 상당 부분 인프라 중심의 자본지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 IT 사이클과 달리 광범위한 신규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 모습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는 AI 중심의 생산성 개선 기대와 실제 노동수요 사이의 시차, 혹은 구조적 불균형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임금 지표는 노동시장 과열 우려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월대비 +0.2%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물론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이 3.6%로 전월(3.4%)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시장 컨센서스(3.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서비스 물가와 연결되는 임금 재가속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업률은 표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노동시장 둔화 조짐이 일부 반영되고 있다. 4월 실업률은 반올림 기준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발표되었으나, 반올림 전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3월 4.26%에서 4월 4.34%로 약 0.08%p 상승했다. 특히 이번에는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감소하면서 실업률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측면이 있다. 만약 4월 중 노동시장을 이탈한 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실업자로 집계되었다면, 실제 실업률은 현재 발표치보다 더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시장 냉각이 단순한 고용 감소보다는 경제활동참가 약화 형태로 일부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번 보고서는 미국 노동시장이 아직 급격한 침체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용 증가의 폭과 질 모두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흐름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연준의 통화정책 측면에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임금과 노동시장 과열 압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긴축 가능성 역시 높이지 않는 결과로 봐야 한다.

Macro Snapshot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